

長이 引率했으며 鄭良謨 李准求 俞門龍 柳佑相 崔完秀氏等이 參加했다.

◎ 論山郡陽村支石墓發掘

國立博物館에서는 十月十四일부터 十八일까지 忠清南道論山郡陽村面新基里에 所在하는 北方式으로 보여지는 支石墓二基를 發掘調査했다. 이 發掘에는 尹武炳 金正基 李永樂 韓炳三氏等이 參加했다.

◎ 興德王陵碑片的 發見

九月 崔南柱氏에 의하여 王陵境內서 發見되었는바 「書前」의 二字뿐이라 한다. (慶博所藏)

◎ 慶州 遠願寺址에서 石物發見

獅子頭象片으로서 東塔 西北 七m 附近에서 九月二十八日 崔南柱氏에 의하여 發見되어 現地保管

◎ 慶州의 寺址調査

同人 黃壽永氏는 文化財專門委員 金周泰氏와 같이 慶州에서 感恩寺址(指定區域買收) 同獐項里寺址(溪谷에 顛落된 東五層塔材의 收拾 및 指定區域整理) 新發見狼山西麓의 木塔址등을 調査하였다(十月二十二日~二十四日)

◎ 百濟石燈屋蓋石의 調査

今春 全北 益山 彌勒寺址 東塔址 北方(東金堂과 塔址사이 中心線上)에서 出土되어 現地에 保管되어오던 石燈材中 八角屋蓋만이 지난 十月二十日頃 扶餘博物館으로 移管되었다. 이 屋蓋는 一片으로 分斷되었는바 徑一m 35 高約 三八cm의 初有의 完形品으로서 既往에 發見 搬移된 火舍, 屋蓋, 上臺蓮花石(모두 扶博保管)과 더불어 그 復元考察이 可能케 되었다. 또 寺址에는 基臺石과 蓮花下臺石이 原位置에 保存되고 있는바 今後의 調査를 통하여 三國時代 石燈으로서 그 全貌가 밝혀지리라 고 한다(十月三十日 扶餘博에서 黃壽永)



奉化發見의 半跏思惟石像

黃 壽 永

— 第六卷 第十二號 通卷六五號 —

(一)

今年 十一月二十四일부터 着手된 한국일보社 主管 「新羅五岳調査」(第四次)는 太白山地區 奉化郡 物野面 北枝二里 水月庵에서 巨大한 磨崖如來坐像을 發掘調査하였다. 이 坐像은 일찌기 同人 秦弘燮 鄭永鎬 兩氏와 筆者에 의하여 注目된바 있었는데 그 下半身과 台座部가 埋沒되고 있어

서 全貌를 밝힐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이 作業이 開始된지 三日이 되는 二十六日에 이 半跏石像이 發掘現場으로부터 南으로 1km 未滿되는 地點에서 發見되어 調査全員의 歡喜한바 되었다.

그 地點은 같은 北枝二里의 龜山洞 俗稱 「소북물거리」로서 附近에 民家は 없고 西北으로부터 높이 二、三十m의 低丘가 連續되어 왔으며 그山麓은 東으로 緩慢한 傾斜를 이루어 밭이 되었고 앞으로 奉化川을 건너 山脈을 對하였다. 이 같은 低丘와 平地가 接하는 낮은 台地 위에는 近世의 民墓二基가 上下로 자리잡고 있었는바 이 石像은 民墓 바로 南便에 東南으로 方向을 잡고 顛倒되어 있었다. 部落民에 의하여 「거북바위」(龜岩)라고 불려오는 이 짐은 岩塊가 의외에도 가장 優秀한 上代의 造形인 에는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先發한 尹容鎮 鄭永鎬 兩氏는 二十六日 午後 처음으로 이것을 確認하고 돌아와 마침 發掘現場에 도착한 秦弘燮 羅炳旭 兩教授와 筆者에게 喜報를 傳하여 주었고 다시 그들과 稀有的 作品을 相對케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現地點이 原位置(上墓)에서 若干 移動된 것으로 推定되었는바 그것은 民墓設置에 따르는 破壞行動에 起因되었으며, 그 時期는 적어도 一、二百年前의 일이라고 推定되었다.

(二)

上半身이 腹部 밑 腰帶結紐위에서 切斷되어 半跏形의 下半身과 底面이 矩形에 가까운 台座만이 花崗一石으로 만들어졌다. 이 石像을 半跏像으로 짐작한 것은 左右로 垂下된 有環縋帶의 彫刻뿐 아니라 後面에 있어서 腰帶와 그 아래로 左右斜線의 衣褶文이 있었으며 다시 臺座上端에는 單瓣仰蓮帶와 그 밑에 縱線文이 사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後面은 比較的 單調로운 刻線뿐이나 上記한 腰帶 衣紋 蓮瓣 그리고 縋帶 등에서 現存하는 國博이나 德美的 國寶像 또는 扶餘博所藏의 扶蘇山發見 滑石小像(下半部뿐) 또는 新指定된 傳平壤平川里出土金銅像 등과 細部에서 매우 近似함을 볼 수 있었다.

翌二十七日 正午頃부터 이 巨大像을 그 자리에 바로 세우는 作業이 開始되었다. 人夫 數名으로 하여금 下地面을 發掘하여 自重으로서 沈下

케한 다음 胴體에 굵은 밧줄을 걸어 그 兩端을 調査員全員과 參觀人士들이 끌어 당기는 한편 앞에서는 圓木을 무릎 밑에 넣어 지렛대로 사용하여 마침내 直立케 함에 이르니 때는 午後二時가 되었다. 이 巨像이다 시 일어서자 前面의 모습이 남김없이 露出되었는바 오랜 土中으로서 褐色을 띠워 黑色의 後面과는 對照가 되었다. 다시 正立되는 瞬間 一同은 모두 歡聲을 올렸으며 筆者 또한 感激과 興奮을 누를 수가 없었다.

前面은 後面과는 달리 이 石像의 原貌를 더한층 드러내 주었다. 그것은 이 石像이 또한 當代의 方式을 따라 前面爲主의 彫法을 보이고 있어 後面의 圓曲面에 比하여 前橫의 平面性이 특히 그 垂下된 넓은 衣襞面에서 는 甚수가 있었다. 이 같은 手法는 그대로 특히 上擧한 扶餘出土百濟石像과 同一하다. 身部에 있어서 半跏된 石膝圓端이 솟아 그 곳에서 足部로 흐르는 彫線은 특히 힘있게 圓刻되어 있으며 足部는 先端이 折斷되어 足指를 찾을 수는 없었다. 石腕 또한 膝端上에서 둥근 接觸圓點을 남길 뿐 찾을 수 없었고 左腕 또한 없어져서 오직 右足部 가까이 內屈한 左手를 남길뿐인바 五指가 完存함은 多幸이었다. 左脚은 垂下되었으나 足部는 없다. 그런데 이 左足은 別石造成으로 생각되는 바 그것은 垂下된 左足下端 底面에 徑十五cm의 圓孔이 파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他例(扶博滑石像片)에서 미루어 蓮座위의 左足指部만을 別造하여 插入시켰을 것이다. 다음에 이 作品의 優秀한 彫法은 臺座 前面 가득히 垂下重疊된 衣褶紋에서 볼 수 있다.

그것은 高彫되어서 寫實의 效果를 두드러지게 나타내므로써 國博像의 平板性보다는 도리어 德美像에 近似한 半跏石脚의 形式과 더불어 먼저 指摘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身部 右側을 따라 흐르는 縋帶에 묶어서 이 衣紋 옆에는 특히 호화스러운 璪珞帶가 垂下되어 있어 他例에서 보기 드문 特異點을 갖고 있었다. 이 같은 裝飾 또한 前面의 衣紋과 같이 寫實的으로 두드러진 彫法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前面爲主의 手法에서 下半身과 臺座는 거의 完全하게 保存되었는바 높이 1m에 達하는 臺座위에 背面에서 膝端까지 또한 1m에 이르는 巨大한 下半身이 前方으로 걸터앉아 있고 臺座幅 九十cm에 比하여 切斷된 腰部幅이 불

과 四十cm 임에서 身部가 특히 細長하였음을 짐작 할 수가 있다. 一石에서 이만한 身軀의 比率을 보이면 安定되고 멋진 로즈를 잡기란 容易한 일이 아니다. 前面의 裝飾手法가 더부러 이石像이 非凡한 作家에 의한 會心の 傑作임을 알 수 있다.

(三)

이 石像은 現高一·六m에 達한다. 그리하여 慶州, 松花山寺址原在의 半跏石像(慶博所藏)의 高一·二五m에 比하여 더크다 하였는데 後者는 兩肩까지 남아 있는 點에서 볼 때 이 新像의 復元値는 約二·五m 內外에 達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크기에서 現存하는 半跏石像中 最大의 것이라 하겠는데 이같은 巨大圓彫石像으로서는 印度 中國 또는 日本 등 信佛諸國에서 比肩할 現存作品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石像은 法堂內에 奉安되어 있었을 것이다. 地表調査에서 보더라도 民墓(北)周邊에 礎石形石材가 一個 東西로 남아 있으며 一帶에 上代의 平瓦片이 無數히 散亂하고 있음에서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이 石像의 安置臺石 및 그方式도 究明되어야 할 것인바 이 石像背面中央下部와 底面左右에 凸形 또는 方形의 牙는 구멍이 파져 있음은 이와 關聯되어 注目할만하다. 동시에 이 石像의 上半身, 頭光, 垂下된 足部등도 이 附近이 發掘되어서 存否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以上 諸點에 대한 解明은 將次의 課題라 하겠으나 끝으로 말하려 함은 이같은 半跏石像이 이 地區에서 發見된 여러가지 理由를 더듬어야 할 것이다. 筆者는 오랫동안 上記한 우리나라 國寶 兩像의 原在處를 더듬는 길에서 榮州地區를 가장 注目하여 왔다. 특히 國博像은 安東發見이라 傳하여 왔으나 筆者가 數年前 日本에서 淺川伯教氏에게 問議하였을 때 그는 榮州 輿地라고 傳聞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 事實 太白山下의 榮州 奉化地區는 그以南의 安東地域과 더부러 古新羅에 있어 國都以北의 佛敎文化의 큰 中心地를 이루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중 특히 榮州一帶는 竹嶺을 두고 高句麗와도 接하여 왔던 곳으로서 일찍부터 佛敎文物이 이곳에 定着하였다고 짐작된다. 그것은 마치 百濟에 있어서 國都 西北方인 瑞山地區가 意外로 佛敎文化의 先驅의 一中心地인 그곳 古代 石像의 檢出로서 밝혀진

事實과도 對比될 것이다. 이와같이 北方으로부터 傳達된 佛敎가 峻嶺을 넘어 新羅國土로 傳輸될 때 國都에 앞서 地方 몇곳에 根據點을 形成하였을 것은 또한 상정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하여 洛東江 流域의 尙州 善山等地와 上記 몇곳을 指摘할 수 있을 것인바 이것은 비단 新羅佛敎 文化史를 傳하는 文獻에서뿐 아니라 古代 物質的 造形의 傳來地點에서도 그러하다. 그리하여 韓國最大의 奉化 半跏石像의 考察에 있어서는 그 歷史的 地域의 背景에서의 注目도 아울러 있어야 될 것이다(慶州나 安東에서 太白山 浮石寺에 이르는 古代의 交通路는 이 石像所在地를 通過하고 있다(우리나라 三國期 半跏思惟形式像의 非常한 發達과 그 相互 및 外國과의 系譜編年에 있어서 이 石像의 樣式 및 年代가 辛중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筆者는 西紀 七世紀의 作으로 推定하면서 동시에 그 尊名(註)推定 및 今後의 發掘을 期待하려 하는 바이다(十二月十六日)

(註) 이 地方 一古老는 이 石物을 가르켜 목없는 「彌勒」이라고 말하였다 한다.

奉化太子寺址 調査概要

秦 弘 燮

奉化郡 北枝里에서 調査를 마친 一行은 太子寺址를 찾기로 方針을 定했다. 太子寺에 着眼하게 된 것은 金生集字碑로 이름난 朗空大師白月栖雲塔碑가 一九一八年 當時의 總督府博物館으로 碑身만 移置된 채 龜趺와 螭首는 現地에 放置되었으리라는 推測으로 寺址를 비롯하여 龜趺와 螭首를 確認해야 할 必要를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寺址는 奉化郡內에 있으리라는 짐작뿐이지 確實한 地點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마침 본 調査團에 參加하였던 安東郡教育廳 安承一氏의 敎示를 따라 安東郡 陶山面에 있는 太子洞을 指目하게 되었다. 太子洞은 陶山書院으로 通하는 大路에서 陝路로 들어 約三十里 地境을 지나 山麓에 位置한 조그마한